

일본 군인을 다치게 한 느티나무



지정번호 금산-8-3-35(금산-60)

지정년도 1997

관리기관 금산

수령 410년

수고 20m

흉고둘레 6,5m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337

36° 10' 33.88" N

127° 28' 20.62" E

마을의 작은 동산에 우뚝 솟아 있는 보호수(금산-8-3-35) 느티나무는 금산지역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충렬사) 곁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는 나무나이가 41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 높이둘레는 650cm, 밑동둘레는 92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4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졌고, 2갈래 중 한 가지는 높이 6m 정도에서 몇 갈래로 다시 갈라져 전체 나무 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였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항일의병 역사와 관련이있다. 금산 지역의 정인조 장군은 조선초기였던 1402년에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들이 민간의 재물을 약탈하고 아녀자를 농락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의병을 모아 추부면 일대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임금은 이를 전해 듣고 정인조 장군에게 ‘충렬^{충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금산의 유림은 장군의 의로움을 추모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 1989년에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의 충렬사가 조성되었다. 충렬사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당 옆에 자리잡은 느티나무가 정인조 장군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금산의 항일의병 유적지를 폭파시키거나 헐어버리면서 모두 훼손하였다. 그러나 이곳의 의병 역사는 살아남은 노거수의 느티나무를 통하여 여러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다. 충렬사는 정인조 장군의 하마비와 느티나무의 이야기 한 토막이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한 일본군이 말을 타고 정장군돌비석(하마비)이 있는 고목의 느티나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일본군은 말에서 내려 느티나무와 비석 앞에 인사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본군은 느티나무 앞을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말에서 떨어져 다쳤다.

